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강수 gang@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미국 이익 모멘텀이 1주 만에 1/4로 급감 - 주도권이 아시아·유럽으로 이동. 미국의 1주 이익 변화율은 +0.018%로 전주 +0.068%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 반면 아시아 +0.109%, 이머징 +0.070%, 일본 +0.070%, 유럽 +0.049%를 기록하며 이익 상향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아시아·유럽으로 이동. 미국이 세계 평균(+0.035%)을 밑돈 것은 최근 수개월 내 처음

미국 정보기술의 이익 변화율은 +0.024%로 전주 +0.169% 대비 급감한 반면 에너지는 +0.070%로 미국 내 1위를 기록. Valero +10.2%, Marathon Petroleum +5.9%, Phillips 66 +4.9% 등 정유 3사가 종목별 상향을 1~3위를 차지했고 Nvidia는 +3.1%로 전주 대비 정상화. 미국 이익 상향의 중심이 일시적으로 AI 성장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로 이동

다만 에너지의 이익 상향은 지속 가능한 이익 동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 WTI는 주간 10% 상승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뒤 금요일 2.4% 반락. 9월 14일 오만에서 이란·걸프국 간 호르무즈 협정 논의가 예정돼 있으며, 협상이 진전될 경우 정유주의 이익 상향이 되돌려질 가능성. 한편 1개월 기준으로는 한국이 +0.735%로 아시아(일본 제외) +0.572%, 대만 +0.358%를 웃돌며 국가별 1위를 유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따른 이익 상향은 지속

Oracle: 9/10 장 마감 후, 클라우드 서프라이즈, 시간외 주가 +7%

FY2027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 클라우드 매출은 116억달러로 62%, 이 가운데 OCI 매출은 74억달러로 121% 증가. 분기 중 300억달러 이상의 신규 AI 계약을 체결하며 고객군 다변화를 확인. RPO는 분기 중 2,090억달러 증가한 6,64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FY2027 CAPEX 가이드는 900억~950억달러로 유지. AI 비관론이 지배한 주간에 AI 트레이드를 되살린 유일한 실적

Adobe: 9/10 장 마감 후, 컨센서스 부합, 주가 -1%

조정 EPS는 6.13달러로 컨센서스를 0.05달러 상회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 그러나 순신규 ARR은 전년 대비 38% 감소. FY2026 총 ARR 증가율 가이드를 10.2%로 보수적으로 유지하면서 순신규 ARR 감소가 한 분기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 AI가 기존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수요를 잠식할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를 재확인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다각화금융서비스 (1주 +0.151%, 1개월 +0.236%, KKR +1.1, Blackstone +0.7, Brookfield +0.5)

이번 주 세부 업종 1위.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사모대출·인프라 펀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금리 상승이 사모대출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운용사의 수수료 수익 전망도 상향

자동차부품 (1주 +0.118%, 1개월 +0.032%)

1개월 변화율보다 1주 변화율이 크게 높아지며 단기 급반전. 완성차 생산 정상화와 부품 재고 조정 종료 기대가 반영

해운 (1주 +0.116%, 1개월 +1.353%)

중동 긴장 재격화와 호르무즈 통항 불확실성으로 탱커 운임 프리미엄이 재차 확대. 1개월 이익 변화율은 +1.353%로 글로벌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누적 상향률을 기록

반도체 (1주 +0.082%, 1개월 +0.612%, Nvidia +3.1, Tokyo Electron +2.4, Advantest +2.4, Applied Materials +1.8, AMD +1.6, Intel +1.4)

주간 상향 폭은 전주보다 둔화됐지만 1개월 기준으로는 해운에 이어 2위. 이번 주에는 Tokyo Electron과 Advantest 등 일본 장비주가 상향을 주도. HBM4 양산을 위한 설비투자 사이클이 장비 수주로 확산되는 흐름

원유·가스 (1주 +0.068%, 1개월 +0.195%, Valero +10.2, Marathon Petroleum +5.9, Phillips 66 +4.9, Shell +1.3, ConocoPhillips +1.2, EOG +1.1, ExxonMobil -1.0, Suncor -0.3, Chevron -0.1)

정유 3사가 글로벌 종목별 상향을 1~3위를 차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정제마진 확대가 직접 반영됐으며, Valero는 3개월 +49.8%·1년 +305.9%로 커버리지 내 최고 수준의 누적 상향을 기록. 반면 ExxonMobil·Chevron·Suncor 등 통합 석유기업과 E&P는 하향을 이어가며 정유와 E&P 간 분화가 심화

전자장비·부품 (1주 +0.065%, 1개월 +0.240%, Amphenol +1.2, Corning +1.1)

AI 서버용 커넥터와 광부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반영. Amphenol과 Corning의 3개월 이익 변화율은 각각 +18.9%, +11.1%로 중기 상향 추세를 유지

산업복합기업 (1주 +0.053%, 1개월 +1.164%, Boeing +3.1, Mitsubishi Corp +1.7)

1개월 기준으로 해운에 이어 업종 2위. Boeing은 3주 연속 상향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1개월 +18.0%, 3개월 +47.9%로 NATO 방산 예산 확대와 737 생산 정상화가 누적 반영. Mitsubishi Corp는 국제유가와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자원 트레이딩 마진 개선 기대가 반영

하향 업종은

수도유틸리티 (1주 -0.109%, 1개월 -0.049%)

이번 주 최대 하향 업종. 금리 인상 확률이 90%까지 높아지면서 자본집약적인 유틸리티 기업의 조달 비용 전망을 직접 압박. 규제 요금 인상이 금리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재확인

소프트웨어 (1주 -0.060%, 1개월 +0.067%, Oracle +1.5, Snowflake +1.5)

업종 전체는 하향했지만 Oracle과 Snowflake는 역방향 상향. Adobe의 순신규 ARR 감소

에서 확인되듯 AI가 기존 SaaS 수요를 잠식하는 크리에이티브·생산성 소프트웨어와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데이터 기업의 이익 방향이 엇갈리는 양상

독립발전·재생에너지 (1주 -0.044%, 1개월 -0.042%)

고금리 장기화로 장기 PPA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재차 압박받으며 4주 연속 하향

도매유통 (1주 -0.041%, 1개월 +0.002%)

글로벌 무역 물량 둔화와 관세 불확실성이 거래 마진 전망을 지속적으로 압박

운송인프라 (1주 -0.032%, 1개월 +0.004%)

중동 긴장으로 항만·물류 인프라의 가동 불확실성이 확대. 해운 운임은 상승하지만 인프라 활용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구조

상호미디어 (1주 -0.002%, 1개월 -0.068%)

6주 연속 하향 지속. AI CAPEX 대비 투자 회수 우려가 구조적으로 이익 추정치를 압박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Valero Energy, Marathon Petroleum, Phillips 66, Nvidia, Boeing, Gilead Sciences, Dell Technologies, Tokyo Electron, Advantest, Merck, Applied Materials, Mitsubishi Corp, AMD

하향 주요 종목은 Investor AB, SoftBank, DoorDash, Prosus, ExxonMobil, Freeport-McMoRan, Tokio Marine, Barrick Mining, Novartis, BHP Group, Inditex, Allianz, Air Liquide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3Q26F OP는 OP는 277조원(1W -0.7%, 1M +0.2%, QoQ +21.1%). 2026E OP는 990조원(1W +0.3%, 1M +0.9%, YoY +230%). **3Q26F OP 상향 업종**은 건설, 기계, 전기장비, 항공, 해운. **하향 업종**은 기술하드웨어, 유틸리티, 보험, 섬유·의복, 증권, 음식료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3Q26F OP)는 SK스퀘어, 삼성SDI, SK이노베이션, HMM, GS, LS 상향. 한국전력, LG화학, 미래에셋증권, LG, 에코프로비엠 하향

3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로보티즈, 한미약품, HMM, SK스퀘어, LS, 현대해상, 삼성SDI, 유진테크, SK이노베이션, DB하이텍, 한화솔루션, 심텍, GS, 이수페타시스, S-Oil, 피에스케이, 카카오페이, 한화, 삼성생명, 두산밥캣, 일진전기, 대한항공, 삼성화재, HD건설기계, 카카오, 원익IPS, 효성중공업, 유한양행, LS ELECTRIC, LG전자, HD한국조선해양, ISC, LG이노텍, 삼성전기, 현대오트오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KT

외국인은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매수했지만 시장 전반에서는 매도 우위. 코스피 2.2조원, 코스닥 1.1조원 순매도.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전기장비, 항공, 건강관리장비, 증권. **순매도 상위 업종**은 화학, 전자재, 호텔·레저

연기금은 소형주를 중심으로 종목별 매수에 나섰지만 코스피 1,500억원, 코스닥 280억원
순매도.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유틸리티, 가전, 기계, 조선, 상사. 연기금 순매도 상
위 업종은 상위 업종은 비철금속, 자동차, 유통, 기술하드웨어, 상호미디어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9.14일(월)

경제지표: 캐나다 8월 CPI

주요 이벤트: 이란-걸프국 호르무즈 협정 논의(오만). 국제유가 방향성의 최대 변수로, 협상
이 진전될 경우 정유주 이익 향상이 되돌려질 가능성

15일(화)

경제지표: 중국 8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오전 11:00 KST) / 영국 7월 고용 /
독일 9월 ZEW

주요 이벤트: FOMC 1일차

16일(수) ★★★ 금주 최대 이벤트

경제지표: FOMC 금리 결정 및 SEP 점도표(오후 2:00 ET·한국시간 17일 오전 3:00) / 워
시 연준 의장 기자회견(오후 2:30 ET) / 미국 8월 소매판매(오전 8:30 ET)

금리 인상 확률은 90%. 3·6·9·12월 회의에서만 점도표가 공개되는 만큼 워시 체제의 두
번째 점도표에서 처음 제시될 2027년 금리 경로가 핵심. 미국 소매판매는 7월 전월 대비
0.6% 감소 이후 소비 회복 여부에 주목

17일(목)

경제지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 미국 8월 주택착공·건축허가 / 미국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 영란은행 금리 결정

18일(금) ★★

경제지표: 일본은행 금리 결정 및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 / 일본 8월 CPI

블룸버그 기준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 1.25%로 조정할 전망.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향후 추가 인상 경로가 중요

주요 이벤트: 쿼드러플 워칭데이(주가지수 선물·옵션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동시 만기)

다음 주 이후 주요 이벤트는 9월 21~23일 일본 연휴, 9월 23일 마이크론 FY2026 4분기
실적, 9월 24~25일 한국 추석 연휴 및 증시 휴장, 9월 28일 추석 대체공휴일 및 한국 증
시 휴장, 9월 30일 미국 8월 PCE, 10월 초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Quant Comment

지난 주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97%로 13bp 상승. VIX는 3.8% 하락했고 SOX는 0.9% 하락, 달러인덱스는 99.12로 0.3% 상승하며 금융시장 지표는 혼조. 금리 급등에도 VIX가 하락한 것은 고금리에 대한 시장의 적응 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부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는 투자심리를 시사

한국과 미국의 이익 상향 폭은 다소 둔화됐으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후로 AI 관련 기업들의 이익모멘텀이 정체될 가능성

금주는 9월 16일 FOMC 점도표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 금리 인상 자체는 90% 가량 반영됐기 때문에 관건은 2027년 금리 경로. 추가 인상을 시사할 경우 국제유가와 금리의 이중 부담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번 인상을 일회성 조정으로 규정한다면 AI-메모리 중심의 이익 상향이 시장을 다시 견인할 가능성. 9월 14일 호르무즈 협상과 18일 BOJ 금리 결정까지 예정돼 있어 자산가격 방향성이 전환될 수 있는 분기점

과거 반도체 외 업종이 주도했던 종목 장세와 현재 환경은 크게 다른 상황. 반도체 중심의 리더십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지수 전반의 조정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다만 한국의 실적 모멘텀 둔화와 개인 순매수 회복은 종목 장세를 판단하는 핵심 프록시인 만큼 관련 팩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